



1

# 벤처 CEO 섬머포럼 2005

벤처산업을 이끄는 주인공들(벤처CEO-벤처캐피탈-유관단체)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

## 협

회는 지난 8월 4일(목)부터 8월 6일(토)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하얏트리젠시호텔에서 '벤처 CEO 섬머포럼(Summer Forum) 2005'를 개최했다. 1997년부터 매년 여름 개최되어 온 섬머스쿨이

올해부터는 섬머포럼으로 명칭을 바꾸고 벤처산업 유관단체와 함께 벤처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벤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에 비중을 높여 진행됐다.

올해 행사에는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룡 위원장, 이계식 제주정무부지사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기대를 느낄 수 있었다.

협회 조현정 회장, 장흥순 공동회장, 이민화 고문 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고정석 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 송혜자 회장과 임원사, 회원사 벤처CEO와 가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벤처 CEO 섬머포럼(Summer Forum) 2005'는 어느 해보다 적극적인 분위기와

높은 열기 속에 진행됐다.

조현정 회장은 개회사에서 "벤처인 스스로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고 벤처 후배들에게 압축성장의 모델을 전수하겠다는 의미로 시작된 행사인 만큼 참석자들 간 정보교류와 인적네트워크 구축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사에 이어 이계식 제주정무부지사가 환영사를 했다.

첫째 날 오후에 진행된 '벤처산업 재도약을 위한 자본조달시장 활성화 토론회'에는 벤처캐피탈협회 고정석 회장이 '벤처캐피탈의 현황 및 투자전망'을, 한국벤처투자 권성철 대표가 '자본시장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기초발표 후 한양대학교 한정화 교수의 사회로 발표자와 참석자들 간에 열린 토론이 벌어졌다. 이어 협회 이민화 고문이 '열린 한국, 대몽골리안 네트워크'를 주제 강연했다. 이민화 고문은 강연을 통해 20세기 한국의 발전을 위한 벤처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강조하고 역사적 흐름으로 21세기 대몽골리안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민화 고문의 방대한 역사적 지식과 거



1 섬머포럼 참가자 단체사진 2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과 벤처기업인들 3 개회사를 하는 협회 조현정 회장 4 강연하는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  
5 만찬에서 건배하는 벤처기업인들 6 가족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 7 환영사를 하는 이계식 제주정무부지사 8 강연하는 이민화 고문

시적 안목으로 국가 발전방향을 위한 독창적인 제언을 담은 이 강연은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저녁에는 섬머포럼에 참여한 벤처기업인의 네트워킹을 위한 공식만찬 '벤처인의 밤' 행사가 있었다. 만찬에는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이 벤처기업인을 격려하기 위해 휴가 중 비공식적으로 짝짝 방문하여 분위기는 그 어느 해보다 높은 사기와 흥분으로 고조됐다.

둘째 날에는 벤처기업인의 新경영기법을 위한 시간이 마련됐다. 서린바이오사이언스 황을문 대표는 '독서경영'을 주제로 강연해 기업의 진정한 경쟁상대는 경쟁사가 아닌 변화(시대)의 흐름이며 변화를 읽기 위해 독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얼굴경영'의 저자인 주선희 인상학 박사는 "CEO의 얼굴은 곧 기업의 얼굴"이라며 "기업 경영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가 얼굴에 반영되므로 평소 자신의 인상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룡 위원장의 특강형식으로 '지방

벤처활성화'를 위한 특강 및 간담회가 진행됐다. 오후에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관광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날에는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이 연사로 참석해 '정부의 벤처활성화 대책 이후 벤처생태계의 변화와 과제'로 주제 발표했다. 이장관은 산업정책국장 재직 시절 '벤처기업 육성법 특별법' 제정에 참여했던 경험과 지난해 이현재 당시 경제부총리 그리고 장흥순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3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통해 '벤처활성화 대책'을 수립했던 것을 회상하며 벤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하고 벤처인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닥스테크 박동훈 대표는 "섬머포럼을 통해 평상시 접하기 어려운 분들의 좋은 강연을 들을 수 있었던 것과 비즈니스 외에 인간적 교류를 할 수 있었던 특별한 계기가 되어 매우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 벤처산업 재도약을 위한 자본조달시장 활성화 토론회

## 벤처캐피털 현황과 전망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고정석 회장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발표된 정부대책은 벤처캐피털을 벤처생태계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할 정도로 많은 발전을 했다. 벤처캐피털 현황을 보면, 창투사와 조합 투자 현황은 현재 창투사가 102개이며 투자조합은 390개 정도다. 이 중 실질적 활동을 하는 창투사는 40개 정도로, 벤처업계와 마찬가지로 벤처캐피털도 구조조정을 통해 성숙해지는 단계에 있다.

투자 전망을 살펴보면 현재 창업투자는 금액으로 2조 4000억, 기업수로는 3000여 개의 기업에 투자되어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투자의 경우 262개, 2079억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8월까지 모태펀드, 국민연금, KIF 등 벤처펀드 결성 등을 계기로 올 하반기부터 벤처투자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발표된 벤처산업 개선제도에 있어 창투사들로 하여금 피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참여가 허용되는 등 피투자기업의 가치제고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마련된 것에 대해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털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다.



## 자본조달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벤처투자 권성철 대표

벤처산업 재도약을 위한 자본조달시장 활성화에 관해 먼저 '벤처 자금조달을 위한 여러 가지 관습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가?' 와 '벤처산업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기 위한 금융 또는 자본시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금융시장은 유동성, 지불기일, 디노미네이션, 위험분배 등 크게 4가지 요소로 이뤄져 있다. 좋은 시장이란 다수의 매수와 매도가 있는 시장, 낮은 거래비용이 드는 시장, 정보에 즉

각 반응하는 가격의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투자자 관점에서 보는 좋은 시장이란 무엇인가? 주주를 위한 경영(경영의사 결정의 투명성), 재무정보의 생산과 유통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의 비대칭이 없어야 한다. 소극적으로는 가격조작을 막고 정보의 미반영 현상을 수정해야 한다. 이러한 좋은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경기장의 심판, 혹은 경찰의 역할이다. 벤처는 투자자에게 믿음을 팔아야 한다. 그러므로 투자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줄 수 있어야 하며, 벤처와 투자자는 정보의 공유, 신뢰의 공유, 과실의 공유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 지방벤처활성화 간담회

### 국가균형발전과 벤처기업의 역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룡 위원장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위기는 국민들이 발휘할 수 있는 상상력과 창조력이 한계점에 다다른 것이라 생각한다. 이순신과 칭기즈칸, 중국 대륙을 통일한 청나라 태조 누루하치의 공통점은 마이너리티의 현실적 한계 속에서도 주관적인 가능성의 측면(Possibility)을 찾아내고, 창조해냄으로써 조직원들이 분명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사람들을 조직하는 천부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를 현대 정부, 지역, 기업정책과 연결시킨다면 인재, 기술, 산업의 결합을 통한 혁신주도형 균형발전전략으로 가야 한다. 이는 결국 창조력과 혁신역량에 있다. 기업의 창조성 지수가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률이 높다. 우리 경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을 통해 각 지역별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특화단지를 만들면서 각 지역별로 경제권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두 번째로, 도농상생형 국토를 만들자는 것인데, 국토의 '산업에너지축'과 '생명에너지축'을 동시에 살려, 도시와 농촌이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정책을 위해서 기업 특히, 기업가정신이 투철한 벤처기업이 그 정책의 우두머리 부문에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혁신주도형 정책을 말하고, 새로운 성공신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산학협력 노력이 중요한데, 벤처기업들이 산학협력 시스템에 나설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을 창업할 때 산학협력의 필요성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일정한 기술을 축적한 벤처기업일수록 산학협력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산학협력의 매개자·촉진자·주도자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별 혁신 클러스터를 주도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벤처기업들이 해나가기를 기대한다.



사진제공: 제주일보 김영하 기자

### 국가균형발전과 벤처기업 정책 방향

지역혁신기업연합회 박용일 회장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와 벤처기업 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아시아 신자본시장의 중심으로서의 코스닥, 둘째 건강한 벤처생태계 조성, 셋째 지방 벤처를 통한 확대재생산으로 집약되며, 이는 곧 벤처기업 정책이 국가균형발전, 신산업육성, 동북아중심국가 실현에 있어 핵심동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2002년 기준으로 78.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지방벤처의 코스닥 상장 우대 제도 ▲지방벤처를 위한 집중육성책 제시를 통해 새로운 벤처 붐 조성 ▲지역 전문가의 코스닥위원회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정부의 벤처활성화대책 이후, 벤처생태계의 변화와 과제

벤처인, 창조성과 역동성으로 우리 경제의 중핵 돼야

벤

처정책은 '86년 이후 태동기, '97년 이후 인프라 확충기를 거쳐 '02년 이후 조정기로 진입에 이어, '04년 말 이후 재도약을 추진 중이다. 그간의 벤처정책을 통해 이공계 우수 인재의 활발한 창업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산업을 중심으로 우리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진했다. 벤처기업은 현재 생산(GDP대비 3%), 수출(총 수출의 4%), 고용(총 취업자 수의 2%) 등 우리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벤처기업의 성과를 주시하고, 정부는 벤처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04년 하반기부터 벤처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산자부장관과 벤처기업협회장 등이 은행회관에서 3시간 동안의 마라톤 회의를 통해 벤처활성화방안을 공동협의했다. 그 이후, '04.12.27 벤처활성화대책과 '05.6.8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을 수립, 시행 중에 있다. 벤처활성화대책의 주요방향은 벤처기업 정책을 직접지원에서 시장 친화적인 인프라 조성에 중점을 두는 벤처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1단계('04.12) 대책은 창업·성장·구조조정이라는 벤처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필요한 인프라와 벤처캐피털과 코스닥 등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며, 2단계('05.6) 대책은 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으로 벤처정책의 효과를 확산하는 것이다.

##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이후 벤처기업 동향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04.12.24)과 보완대책('05.6.8) 이후 창업 증가,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 벤처업계 역동성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우선 벤처기업 수가 '05.6월 말 현재 8959개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벤처캐피털은 '05.6월 말 현재, 창투자 102개와 신기술금융사 8개가 투자 업무를 수행 중이다. 그간 코스닥시장의 침체 등으로 투자조합결성 및 신규투자가 위축되어 왔으나, '05년 하반기부터 신규 투자가 회복될 전망이다. 현재는 벤처캐피털의 거품 제거 및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는 단계로 벤처캐피털의 활성화는 대규모 투자자금인 국민연금, 한국IT펀드(KIF), 모태펀드 등이 실제 자금집행되는 하반기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닥시장은 벤처기업의 직접자금 조달창구이자 벤처캐피털의 투자회수 시장으로 벤처대책 이후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월 5일 현재 코스닥지수는 작년 말 대비 39.1% 증가한 529.0p에 달하고 있어 코스닥 시장을 기술력 중심의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벤처기업의 상장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벤처 창업동향을 보면 지난해까지 내수부진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던 중소기업은 최근 창업, 가동률 등에서 회복의 징후를 시현하고 있다. 6월까지 창업업체 수는 2만 7743개로 전년 동기대비 10.1% 증가했다. 특히 벤처창업의 주류를 이루는 교수·연구원 창업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 벤처업계의 향후 과제

그간 정부는 벤처업계 등 시장의 의견을 수렴, 이를 반영한 두 번의 대책을 수립하여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고 그로 인해 벤처업계에서는 재도약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향후에도 정부는 건전한 벤처생태계 조성과 업계의 자율적인 역량의 발휘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보완을 추진할 것이다. 벤처업계에서는 혁신역량 강화 등을 통해 벤처기업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은 지난 8월 6일 '벤처 CEO 섬머포럼 2005' 마지막 날 행사에 참석, '정부의 벤처활성화 대책 이후, 벤처생태계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 발표했다. 다음은 이장관의 발표내용을 요약한 글이다.

첫째, 기술·경영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혁신형 기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벤처기업 스스로 기술개발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기업경쟁력과 수익성을 근원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고용창출 원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은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우려가 있다. 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고용창출원으로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간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회가 펼치고 있는 1사 1인 채용 캠페인 등을 통해 앞으로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길 기대한다.

셋째,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일부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국민적 불신 치유를 위해, 협회가 중심이 되어 벤처기업 윤리 경영의 확산과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 등의 자발적인 노력을 다양하게 추진 중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협회가 '05년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벤처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려고 도모하는 것은 아주 뜻깊은 일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회공헌을 통해 벤처기업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산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한다.



우리 벤처기업인들이 창조성과 역동성을 가지고 경영에 매진한다면, 앞으로 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확고부동한 중핵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확신한다. 휴렛 팩커드의 여성 CEO였던 칼리 피오리나(Carly Fiorina)는 2002년 컴덱스(Comdex)의 기조 연설에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진보가 냉소주의자나 의심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진보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벤처기업인들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술혁신에 전념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전진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